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363

JCCT 2021-11-44

성폭력행위자의 수강명령프로그램 효과

Effect of the course order program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전우철*, 김진숙**

Woo Chul Jeon*, Jin Sook Kim**

요약 본 연구는 성폭력행위자가 수강명령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성폭력수강명령프로그램 40시간을 경험한 남성으로서, D시에 거주하는 성폭력행위자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자료 수집은 본 연구자가 성폭력 수강명령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강사 자격으로, 교육 전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교육 종료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성폭력 행위자를 위한 수강명령프로그램이 성폭력 행위자의 공격성, 충동성, 강간통념, 고독감, 분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격성, 충동성, 강간통념, 분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고독감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성폭력행위자들을 대상으로 법무부 성폭력 프로그램의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교육을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른 행동변화를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폭력행위자 수강명령프로그램이 성폭력 재발방지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차후 수강명령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성폭력, 수강명령프로그램, 성폭력행위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sis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in which sexual violence offenders participated in correctional program.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men living in D city had completed 40 hours of correctional program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For data collection, a pre-test before training and a post-test completion of training were conducted for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Those who had aggression, impulsivity, rape myth and anger had a positive effect after the correctional program, but that program didn't help those with feelings of lonelines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through pre and post tests of the Ministry of Justice's sexual violence program targeting sexual violence offenders, and it is significant in seeking ways to change their behavior accordingly. Therefore, this study will be effective in preventing the recurrence of sexual violence, and it will contribute as a data that can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rrectional program for sexual violence offenders.

Key words : Sexual violence, Correctional program, Sexual violence offender

*정희원,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융합학과 조교수 (제1저자) Received: September 30, 2021 / Revised: October 10, 2021

**정희원,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융합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Accepted: October 18, 2021

접수일: 2021년 9월 30일, 수정완료일: 2021년 10월 10일

게재확정일: 2021년 10월 18일

*Corresponding Author: jskim@dhu.ac.kr

Dept. of Lifelong Education Convergence, Daegu Haany Univ, Korea

I. 서론

성폭력은 성과 관련된 행위로 타인에게 육체적 손상과 정신적, 심리적인 압박을 주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감소를 위해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여 오늘날까지 꾸준히 재·개정을 하며 성범죄에 대처해 왔으나 성범죄는 감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날로 흉포화 되어가는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성폭력행위자의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는 주로 왜곡된 성 관념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가해자 개개인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되기는 어렵다 [20].

가해자들의 공간 통념에 의하면 ‘피해자들도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성행위를 원하고 즐긴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성폭력 행위를 행위자의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왜곡현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17].

법무부에서는 성폭력 행위자 중심의 성교육프로그램인 수강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준법지원센터에서 집행하는 수강명령프로그램은 성폭력행위자의 성인지 개선과 재범방지라는 목표를 세우고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강명령을 받고 있는 성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수강명령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행위자를 위한 수강명령프로그램이 공간 통념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성폭력행위자를 위한 수강명령프로그램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성폭력행위자를 위한 수강명령프로그램이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넷째, 성폭력행위자를 위한 수강명령프로그램이 고독감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다섯째, 성폭력행위자를 위한 수강명령프로그램이 분노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II. 이론고찰

성폭력행위자의 특성에서 정서적 특성은 공감능력의 결여에서 오는 공격성과 충동성, 성인지의 왜곡으로 인한 공간 통념 그리고 성격적인 측면에서 오는 고독감, 자기조절능력 부족으로 인한 분노이다.

정서 공감의 부족은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도움을 주는 행동과 같은 이타행동의 부재, 대인간 폭력 및 공격성 등의 문제로 나타남으로써 인간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8]. 부모의 이혼, 유기, 방치, 폭력, 지배적이고 권위적인 양육태도, 학력위주의 생활태도 등 부적절한 양육환경이 자기형성에 중요한 공감의 결핍이라는 심리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성폭력행위자들은 성인지 능력의 결여와 성에 대한 무지, 성을 인식하는 방식의 오류에서 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침묵이나 약한 저항을 성폭력행위자들은 즐기고 좋아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행동을 잘못 지각하는 경향도 있으며 자신의 범죄행위를 부인하거나 심각성을 축소시켜 보고한다 [1]. 성에 대한 인지왜곡은 자신의 강제적인 성행위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줌에도 성에 대한 왜곡을 통해 범죄를 지속시키며 자신의 성폭력 행위를 정당화시킨다 [2]. 그리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성범죄자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관계적 측면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건강하고 온당한 인간관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항상 고독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21].

자기조절능력 부족으로 인한 분노는 긴장되고 격분되고 화가 나는 주관적인 느낌과 자율 신경계의 활성화에 의해 나타나는 감정으로 각 개인에게 특유한 행동방식을 유발한다 [22].

이러한 성폭력행위자들의 정서적인 특성에 대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성폭력행위자의 수강명령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D시의 준법지원센터에서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40시간이상 수강명령프로그램에 참여한 성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성폭력행위자는 총 118명이며 법원의 보호처분에 의한 수강명령

대상자로 5개의 집단으로 이루어졌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의 수강명령프로그램은 법무부의 ‘성폭력행위자 교정 프로그램 매뉴얼 지침’에서 정한 표준 운영 모델에 따라 주 5일 15회기로 진행하였다.

진행자는 법무부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한 전문 강사 1인이 진행하였으며, 준법지원센터에서 10년 동안 성폭력행위자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그리고 수강명령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는 설문과 수강명령프로그램 시작 전후에 사전, 사후 검사지를 배포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행위자의 정서적 성향과 심리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성폭력행위자 수강명령프로그램에 참여한 118명의 대상자로부터 공격성, 충동성, 강간통념, 고독감, 분노에 표준 척도를 활용하여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성폭력행위자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공격성 척도를 번안한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4], [16]. 공격성은 신체적, 언어적, 직접적, 간접적 공격성의 4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충동성 수준 측정을 위해 Barratt가 제작한 BIS-II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3], [10]. 충동성은 무계획충동성, 인지충동성, 운동충동성으로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간통념척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새로운 척도로 개발한 강간통념척도를 사용하였다 [23]. 강간통념은 피해자의 성격이나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 성폭력 피해의 책임귀인,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폭력행위자의 고독감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한 원래의 UCLA 고독감 척도를 한국판 UCLA으로 번안한 고독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15]. 고독감의 하위요인은 친근한 타인, 사회적 관계, 소속감으로 구분된다. 특성 분노는 Spielberger의 척도를 번안한 것을 사용한 연구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것을 사용하였다 [12].

이러한 검사의 항목은 성폭력행위자의 성격적, 인지적, 사회적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척도이다.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도구의 신뢰도 분석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of research tools

| 항목 | | 설문 문항수 | Cronbach's α(사전) | Cronbach's α(사후) |
|----------|------------------------|-----------|---------------------|---------------------|
| 공격성 | | 48 | .898 | .928 |
| 하위 요인 | 신체적 | 10 | .771 | .848 |
| | 언어적 | 11 | .738 | .705 |
| | 직접적 | 18 | .791 | .854 |
| | 간접적 | 9 | .602 | .605 |
| 충동성 | | 23 | .612 | .763 |
| 하위 요인 | 무계획 | 9 | .675 | .604 |
| | 인지 | 6 | .655 | .620 |
| | 운동 | 8 | .729 | .791 |
| 강간통념 | | 20 | .952 | .943 |
| 하위 요인 | 피해자 책임귀인 | 8 | .904 | .904 |
| | 피해자 성경험 | 4 | .874 | .796 |
| |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 5 | .877 | .876 |
| |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 | 3 | .692 | .701 |
| 고독감 | | 20 | .666 | .943 |
| 하위 요인 | 친근한 타인 | 11 | .807 | .831 |
| | 사회적 관계 | 5 | .843 | .866 |
| | 소속감 | 4 | .826 | .733 |
| 분노 | | 15 | .937 | .929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는 SPSS 25.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척도별로 신뢰도를 평가하여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사전, 사후를 평가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IV. 연구결과

성폭력행위자의 수강명령프로그램 효과에 대하여 t-test 비교 분석한 결과, 공격성 척도, 충동성 척도, 강간통념 척도, 분노 척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고독감 척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먼저, 공격성에 대한 하위요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공격성 척도의 하위 영역의 대응표본에서는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직접적 공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접적 공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표적이 없는 공격적인 행동이거나 공격을 유발한 당사자가 아닌 다른 표적에 대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간접적 공격 행동은 수강명령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에게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공격성이 어떠한 형태인지 인식을 하며,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효과를 보여서 사전과 사후에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성에 대한 하위요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인지 충동성과 운동충동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무계획 충동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일을 끝맺지 못하는 것, 일의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 일을 진행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 등을 말한다. 수강명령프로그램에 참여한 성폭력행위자의 경우 심한 성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성추행이나 성희롱과 같은 범죄로 인하여 수강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성폭력을 계획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가 수강명령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무계획충동성을 깨닫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강간통념에 대한 하위요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과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의 책임귀인은 여자에게 있다고 보는 시각을 말한다. 성폭력 행위가 나의 책임이 아니라 피해자가 허락을 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로 책임을 상대방에게 귀인 하였으나 교육을 통해 그러한 시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면서 사전, 사후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피해자 성경험의 하위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피해자는 예전에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 해당한다든지 등의 왜곡된 시각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강명령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이 왜곡된 생각이었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사전, 사후에 큰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행위자들의 분노에는 유의한 차이를 알 수 있었으나 하위척도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표 2. 성폭력행위자의 수강명령프로그램 효과
Table 2. Analysis on Effect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Correctional Program

| 항목 | 사전 | 사후 | 대응차 M(SD) | t | |
|----------|------------------------|-------------------|------------------|-----------------|---------|
| 공격성 | 113.13 (16.25) | 108.60 (16.51) | 4.54 (21.88) | 2.00* | |
| 하위 요인 | 신체적 | 21.90 (4.90) | 20.67 (5.09) | 1.24 (6.76) | 1.75 |
| | 언어적 | 27.44 (4.42) | 26.81 (3.79) | .63 (5.54) | 1.10 |
| | 직접적 | 40.77 (6.97) | 39.87 (6.73) | .90 (8.80) | .99 |
| | 간접적 | 23.02 (3.42) | 21.62 (3.36) | 1.39 (5.13) | 2.61* |
| 충동성 | 55.30 (4.80) | 52.68 (6.53) | 2.62 (7.60) | 3.33*** | |
| 하위 요인 | 무계획 | 22.95 (3.63) | 21.49 (2.74) | 1.45 (4.09) | 3.42** |
| | 인지 | 14.72 (2.15) | 14.25 (2.47) | .47 (3.26) | 1.40 |
| | 운동 | 17.63 (3.36) | 16.94 (3.44) | .70 (4.53) | 1.48 |
| 강간통념 | 65.50 (32.31) | 55.79 (24.29) | 9.71 (40.17) | 2.33* | |
| 하위 요인 | 피해자 책임귀인 | 30.37 (14.75) | 24.85 (11.77) | 5.52 (19.19) | 2.77** |
| | 피해자 성경험 | 13.34 (7.57) | 9.73 (4.73) | 3.61 (8.17) | 4.27*** |
| |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 14.00 (8.43) | 12.83 (6.87) | 1.17 (10.98) | 1.03 |
| |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 | 8.76 (4.56) | 8.38 (4.22) | .39 (6.16) | .61 |
| 고독감 | 42.18 (5.50) | 41.88 (6.11) | -.30 (7.66) | .38 | |
| 하위 요인 | 친근한 타인 | 17.45 (5.10) | 16.97 (5.05) | .48 (6.23) | .75 |
| | 사회적 관계 | 13.88 (3.63) | 14.31 (3.60) | -.43 (4.79) | -.87 |
| | 소속감 | 10.55 (3.01) | 10.90 (2.92) | -.35 (3.82) | -.89 |
| 분노 | 27.90 (7.86) | 25.23 (9.28) | 1.77 (11.63) | 2.02* | |

수강명령프로그램에 참여한 성폭력행위자들의 고독감에 대한 하위 요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친근한 타인, 사회적 관계, 소속감의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독감은 사회생활 전반에서 나타나며, 자신의 주변에 가까운 상대가 없으며, 소속된 일정한 집단이 없는 경우 사회적 고립감과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고독감은 성격적 특성으로써 단기간의 교육으로 인하여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성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수강명령프로그램에 참여한 11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폭력행위자의 공격성, 충동성, 강간통념, 고독감, 분노를 살펴보았다. 성폭력행위자 수강명령프로그램은 전체 15회로 구성되어 5일간 총 40시간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강명령프로그램에 참여한 성폭력행위자들의 공격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전, 사후 검사 결과 공격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영역인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직접적 공격성, 간접적 공격성에서 간접적 공격성에서만 사전보다 사후에서 유의하게 낮은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에서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진 결과와 일치하였다 [11], [13]. 공감능력 결여가 타인에 대한 느낌이나 자신의 생각과 상호작용을 못함으로써 성폭력행위자의 공격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성적인 공격성에서 공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공감이 성적공격성 감소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9].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수강명령프로그램이 성폭력행위자의 공격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수강명령프로그램에 참여한 성폭력행위자들의 충동성을 살펴보면 사전, 사후 검사 결과 충동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 영역인 무계획 충동성, 인지 충동성, 운동 충동성에서 무계획 충동성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행위자들이 수강명령프로그램을 통하여 계획성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을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어 충동성이 낮아진 결과를 보였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6], [7] [13]. 자신의 성폭력행위의 책임을 인정, 수용하고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공감하는 훈련을 위한 수강명령프로그램의 개입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수강명령프로그램에 참여한 성폭력행위자들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강간통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영역인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피해자의 성격형에서 사전보다 사후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성폭력행위자는 성에 관하여 편향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 합리화하는 경향 등이 있다. 강간통념은 성폭력가해자의 대표적인 심리적 특성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었으며, 성폭력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프로그램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제로 보았다 [8].

넷째, 수강명령프로그램에 참여한 성폭력행위자들의 고독감을 사전, 사후 검사 결과 고독감에는 변화가 없었다. 고독감은 성격적 특성과 오랜 시간동안 환경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를 요하는 것으로 단시간 내에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감의 경우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영향으로 참여자들이 결혼가정에서 자라거나, 더 나아가서 사회로부터 고립된 환경에서 성장하였기에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성폭력 범행과 함께 더욱 고립적으로 만들고 있다. 고립감은 단시간 내의 교육으로 변화할 수 없는 척도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수강명령프로그램에 참여한 성폭력행위자들의 분노의 사전, 사후 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폭력행위자의 동기적 요인 중 하나는 여성에 대한 분노와 공격이라고 하였다. 이 분노가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면 일상생활의 적응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20]. 분노는 상태분노와 특성 분노, 분노 억제 및 분노 표출에 있어서 성범죄집단과 일반범죄 집단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분노 통제에 있어서는 성범죄집단이 일반범죄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24]. 따라서 분노 표출에서 교육 이전과 이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를 지지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행위자 수강명령프로그램에서 종속변수인 공격성, 충동성, 강간통념, 분노에서 유의미한 변화의 차이가 인정되었으며, 수강명령프로그램의 효과는 검증되었다고 본다. 수강명령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성폭력행위자들의 자기 보고서에 의하면 성에 대한 관념과 성 인지가 조금씩 변화하였으며, 성에 대한 가치관도 생겼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성폭력의 발생 원인과 사건에 대하여 숨김없이 자신을 개방하였고, 성폭력 재범에 대한 방지책과 차후 행동에 변화를 주기 위한 방법들을 깨우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된 성폭력행위자 수강명령프로그램은 성폭력 재발방지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겠다.

References

- [1] Backer, J. V. Adolescent sex offenders. *The Behavior Therapist*. No. 11, pp 185-187. 1988.
- [2] Becker, J. V., and Kaplan, M. The assessment of adolescent sex offenders. *Advances in Behavioral Assess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No. 4, pp 97-118. 1988.
- [3] Burt, M. R.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8, pp 217-230, 1980.
- [4] Buss, A, H and Durkee, A.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Vol. 21, pp 343-349, 1957.
- [5] Dong-Im Lee. Some Suggestions for the Effectiv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Ph. D.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07.
- [6] Eun-Ju Jeong, Wae-Sun Choi and Gab-Sook Kim. Psychological Art Therapy on the Maladjustment Behaviors and the Narcissism of The Girl, a Victim of Bullying. *Art therapy research*, Vol. 16, No. 3. pp 339-358, 2009.
- [7] Gab-Su Pyo and Jeong-Ok Eom. A Study on Effects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Program for Sexual Assault Offenders.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Vol. 54, No. 54. pp 211-236, 2012.
- [8] Hae-Sik Jung. A comparison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etween male Sex offenders and General Criminals. M.D. Graduate School of Rehabilitation Science Daegu University.
- [9] Hall, G., and Barongan, C. Prevention of sexual aggression: Sociocultura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merican Psychologist*, Vol. 5, No. 2, pp 5-14, 1997.
- [10] Hyeon-Su Lee. *Impulsivity test*, Seoul: Korea guidance, 1992.
- [11] Jeong-Hee Gang and Sun-Nyeo Kim. An Effectiveness Analysis of Remedial Program Against Sexual Offenders. *Correctional Welfare Research*, Vol. 35, No. 35, pp 71-105, 2014.
- [12] Ji-Hyun Kim, Hee-Cheol Choi, Chang-Soon Ham and Moon-Hee Jong.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Hidden Sexual Abusers in University Mal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7, No. 2, pp 259-269, 2006.
- [13] Jung-Hee Park, An Effectiveness Analysis of Remedial Program Against Sexual Offenders. Ph.D. The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13.
- [14] Kyeong-Suk Park and Dong-Yeol Shin. A Phenomenological Study on Sexual Violence Performer's Psychological Division and Social Isol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8, No. 6, pp 321-338. 2017.
- [15] Kyo-Heon Kim and Ji-Hwan Kim. Korea UCLA Loneliness Scale, *Journal of Student Guidance*, Vol. 16, pp 13-30, 1989.
- [16] Kyung-Ja Hong and An-Young Rho. The Effects of Assertive Training on the Reduction of Aggression and Anxiety in Juvenile Delinqu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4, No. 1, pp 19-31, 1983.
- [17] Malarnuth, N., and Brown, L. Sexually aggressive men's perceptions of women's communications: Testing three expla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7, pp 699-712, 1994.
- [18] Myung-Sun Chung. Oriented Group Art Therapy for Enhancement of Adolescent Attention and Empathy. *Art therapy research*, Vol. 17, No. 3. pp 587-614, 2010.
- [19] Shin-Duk Kang.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for Anger Control and its Validation,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5, No. 5, pp 81-143, 1997.
- [20] Soo-Jeong Park.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Sexual Violence Offenders' Participating Experiences in Therapeutic Program. Ph.D. Th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Pyongtaek University, 2014.
- [21] Soo-Jung Lee and In-Hee Lee. A study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correctional psychological test and correctional counseling evaluation of the detainee : Prediction of recidivism and violation of discipline after 5 year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21, No. 2, pp 1-15, 2007.
- [22] Spielberger, C. D. *Professional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STAXI)*. Tamp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23] Suk-Jae Lee. Development of a Rape Myth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13, No. 2, pp 131-148, 1999.
- [24] Won-Young Song. Contents of the youth sexual violence perpetrator treatment program: Focusing o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Medical behavioral science*, Vol 5, No. 1, pp 12-22, 2006.

※ 본 논문은 2021년 2월 전우철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함.